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Good Society Activists

"길 위에서 십대 여성 만나기"

"마을 속 비폭력 배움터"

"이웃과 어우러지는 꿈들이 텃밭 가꾸기"

(156-808) 서울시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4층 돌음터

T. 02-825-7947 F. 02-823-7947 E-mail. good7947@gmail.com

Cafe. <http://cafe.naver.com/good7947>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001-334119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2012 꿈틀이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내가 버린 남은 음식물, 지금 어디에...

우리나라의 남은 음식물은 하루에 14,119톤으로, 그 처리비용이 연간 1조원에 달하며, 1조원이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70개를 짓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풀씨모임>은 2009년부터 4년간 마을에서, 지렁이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영양분이 가득한 분변토로 화초나 야채를 기르는,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꿈틀이 텃밭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웃 이웃과 어우러지면서 지역공동체를 만듭니다.

생태 착한 농부 지렁이와 함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합니다.

실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환경을 지킵니다.

오셔서 반갑게 꿈틀이와 이웃을 만나고, 자리를 빛내주세요.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미리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행사안내

사회: 강미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1부 여는공연 (2:00~2:10)

꿈틀이 노래와 춤 (신아 어린이집 아이들과 풀씨모임 회원)

2부 꿈틀이 토론회 (2:10~4:00)

지렁이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하면서 그린(Green)이웃 되기 - 이경희, 김경자(풀씨모임)

광주 신한모아아파트의 지렁이 퇴비화 사례 발표 - 박필순(광주전남 녹색연합 녹색마을 위원장)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현황과 방향 - 유재용(동작구청 청소행정과장)

토론

안철환 (텃밭 보급소 소장, 도시 농업 시민협의회 대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초록상상 사무국장)

3부 꿈틀이 미니 토분 무료분양(4:00~)

사전 신청하신 분, 선착순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월) 오후 2시~4시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 (대방역 3번출구앞)